

정통기독교단의 '이단' 공격 거세진다

시한부 종말론 · 뉴에이지운동 등에 대한 본격 비판서 잇달아 출간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안팎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한 양태로 많은 저작물들을 펴내고 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내부의 敵과 '뉴에이지(New Age)운동'이라는 외부의 적을 비판하는 책들이 올해 여름 이후 각각 20여권씩 출간된 것이다.

시한부 종말론은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른바 말세 중의 말세, 즉 末世之末이라는 말이 퍼지고 여기에 필시 콜레의 「내가 본 천국」 「100가지 천국의 비밀」 등이 해적판까지 성행하며 100만부 이상 팔리면서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장림씨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늘문이 열린다」 「1992년의 열풍」 등을 후속타로 내면서 '사이비 종말론'은 비단 교회 차원의 병리현상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절실해질 만큼 확산되었음은 두루 아는 사실로 되었다. 이에 기독교에서는 올바른 종말론을 제시해 주고 시한부 종말론의 허구성을 파헤치는 책들을 펴내기 시작했다.

'시한부 종말론'의 허구성을 파헤친 책들

일일이 열거하자면, 「개혁주의 종말론」(기독교문서선교회), 「과연 1992년에 종말이 오는가」(국종), 「들리는 나팔소리」(목민), 「마지막 세대의 미혹」(무림), 「마지막에 될 일들」(엠마오), 「바울의 종말론」(엠마오), 「성경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재림」(카이로스), 「시한부 종말론 과연 성경적인가」(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시한부 종말론과 실현된 종말론」(말씀의 집), 「이초석 · 이장림의 정체」(국종), 「재림과 천년왕국」(새순), 「종말과 영성」(디다케), 「종말이 오고 있다」(대장간), 「종말론 I · II」(대한기독교출판사), 「천국 상급」(나비), 「천년왕국」(성광문화사), 「축복된 소망」(정음), 「파라다이스 방문기」(보이스), 「평신도가 본 1992년의 열풍」(일신사), 「현대 종말론의 성경적 조명」(기독교문서선교회), 「환난인가 휴거인가」(엠마오) 등등이다. 이 책들은 「시한부 종말론은 신학적 논리체계가 빈약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대응할 대상이 못된다」는 전제 아래, 「예수의 재림 시기를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神權濫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리안주의와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A. D 2세기에 초대교회를 공격한 이래 기독교에 대한 최대의 그리고 가장 음흉한 도전이라는 '뉴에이지 운동'을 비판하는 기독교자들의 저술도 왕성하게 출간되고 있다. 이 세상의 완

기독교계에서 안팎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방식으로 저작물들을

펴내고 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내부의 적과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외부의 적을 비판하는 책들을

올해 여름 이후 20여권씩 펴낸 것.

세상의 파국을 전제하는 종말론과는

대척적으로 뉴에이지 운동은 일종의

유토피아 운동이라고 한다.

전한 파국을 전제하는 종말론 운동과는 대척적으로 이 세상의 변혁을 소망하는 '유토피아 운동'인 뉴에이지, 즉 새로운 시대란 영성한 형태로 공자의 덕치정치, 칸트의 목적왕국 및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사상으로 알려져 있다. 「두뇌 혁명」(The Brain Revolution)과 「물병자리 공모」(Aquarian Conspiracy)란 책을 씀으로써 뉴에이지 운동의 '공식적인 주장자'로 불리는 미국의 마릴린 퍼거슨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옮기면, 「중세의 神本主義에 억눌렸던 인간의 자기정체성을 되찾고자 했던 것이 르네상스라면 물질문명에 의해 자신을 잃어버린 현대에 인간 스스로가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자는 제2의 르네상스가 바로 뉴에이지 운동의 목표」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인간 자신이 곧 신이라는 人神사상을 요체로 하는 체계이며 윤회설과 '我梵'—如 등 반기독교적 요소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기독교 운동"이라고 이화여대 생물학과 이양림 교수는 말한다. 또한 「뉴에이지」(엠마오)를 편저한 김일우 목사는 뉴에이지란 "신비종교와 힌두교와 불교 등의 동양종교를 근간으로 하여 진화론적 낙관주의와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문명들과 외계의 문명들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신비적 감정을 혼합하여 그것에 '과학'이라는 옷을 입힌 현대판 신화 운동"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이어 몇 가지 질문을 한다. 초능력, 氣, 丹, 念力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배꼽」 「성자가 된 청소년」 「빵자수 야곱」 「꼬마 성자」 「빠빠라기」 등과 같은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초월명상, 마인드 컨트롤, 요가, 명상, UFO 등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영화 '사랑과



한 기독교전문서점의 '뉴에이지 운동 비판서' 코너.

영혼' 「꿈의 구장」 '스타워즈' 'ET' '사랑의 기쁨' '엔젤 하트' '헬나이트' '레드소냐' 같은 것을 관한 적이 있는가? '개구장이 스머프' '늑대와 미녀' '환상 특급' 등과 같은 TV프로를 본 적이 있는가? 존지 윈스턴의 '디셈버'나 데이빗 렌즈, 반젤리스, 소지로 등의 음악이나 태교음악, 명상음악 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현세의 「악마의 성전」, 허영만의 「블랙홀」 「화이트홀」 「텔레파시」 「초감각전쟁」, 조운학의 「아가페」 「유체이탈」, 박봉성의 「기」 「사이키 파워」, 박원빈의 「공포의 차크라」 같은 만화들을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서울대 종교학과 윤이훈 교수는 "뉴에이지 사상은 사유의 성숙도에 있어서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동양과 서양의 고전 전통과의 결별도 아니고 진지한 이해에 바탕을 둔 것도 아니며, 정통적인 과학지식이 동원된 것도 정통 종교사상이 수용된 것도 아닌 체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뉴에이지 운동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知的인 유행가'이며 문화형태의 한 거품 같은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일례로 동양의 전통적 자기 수련 방법인 요가가 미국의 뉴에이지들에 의해 기본전환과 건강을 위한 術로 변형된 채 다시 동양으로 역수입되어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문화적 해독'일 수 있다고 한다.

불건전문화에 대한 비판서로 임힐 여지 남겨

이렇듯 종교적 · 문화적 '이단'인 뉴에이지에 대한 기독교계의 비판 서적들은 구미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신학자들의 연구집적물들은 올해 여름 이후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작년에 바실레아 슬링크의 「뉴에이지 운동」(엠마오)이 번역되어 나온 것을 시발로,

금년 2월에 결성된 CANA(反 뉴에이지 기독교클럽)에서 「반 뉴에이지 신서」(예영 커뮤니케이션)를 3권째 발간했고,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뉴에이지 운동 비판 시리즈」를 현재 9권째 펴냈다. 엠마오 출판사에서는 「이 세상에 미래가 있습니까」 「록 음악의 위험」 등의 번역서와 「뉴에이지」 등의 국내저작을 출간했다. 김용광 기자의 「뉴에이지 운동의 정체」 「영혼을 오염시키는 음악들」(국민일보사), 신상언씨의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낮은 울타리), 손종태씨의 「팝 음악에 나타난 사탄의 활동」(크리스찬서적) 등은 판을 거듭하며 판매되고 있다.

이들 책이 내리는 결론은 뉴에이지 운동이란 反문화, 인본주의, 유토피아, 동양사상의 아류적 형태, 혼합주의 운동이라는 것. 그리고 대중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나라에 유입된 뉴에이지 사상의 조각들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놀랄 만큼 통일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양림 교수는 「교회에서는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어 뉴에이지의 해악성을 설명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교회 밖을 향하여서는 낙태, 동성애, 미신조장 등 기존의 윤리관을 파괴하는 요소가 많기에 나쁘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CANA클럽의 김승태 연구회원은 "굳이 기독교적 세계관보다도 진전 · 비건전이라는 잣대로 재봐도 뉴에이지는 비건전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뉴에이지 비판서들은 원칙적으로는 특정종교의 일종의 '효교론'이겠지만 불건전한 문화의 역수입을 경계하자는 기독교계의 대사회적인 발언으로도 읽힐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 김중식 기자